

#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탄력성과 적응분석\*

## Resilience and Adjustment of Retired Husbands and 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김명자\*\*

Major in Family and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im, Myung-Ch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resilience on the adjustment of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Data was collected from 174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 score, percentile, paired-t test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djustments between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2. Individual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resilience had a strong impact on the adjustment of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Self-esteem, acceptance of retirem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 family cohesion, and retirement polic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husbands' adjustment.
3. As for the adjustment of the wives, self-esteem,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 family cohesion, acceptance of husbands' retirement and religious activi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In summary,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in the adjustment of retired husbands and their wives.

▲ 주요어(key words) : 적응(adaptation), 개인탄력성(individual resilience),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사회탄력성(social resilience), 퇴직한 남편(retired husbands).대학

### 1. 연구목적

직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의 근거가 되며 개인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단시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일중심사회로 변모하면서 성장제일주의의 가치 하에 특히 남성에게 과중한 직업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영역은 경시되는 반면 공적 영역이 중요시되고 비대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퇴직상태에 있는 남성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 산업화 추진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한 근대화의

주역으로 고도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인·가족의 삶보다는 직업생활을 우선시하는 삶에 익숙해 온 세대이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기에 출생하여 청장년기를 오로지 일에 문혀 살면서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우선시하며 일벌레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한 세대이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종신고용의 틀이 와해되면서 이들은 비교적 불안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김명자, 1998). 개인적 성취와 가족부양의 의무를 직업을 통해 수행해 왔던 이들에게 직장이 생활의 중심이었으므로 퇴직은 곧 생활의 중심을 상실하는 것이며 가족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퇴직 남성은 가족내 역할, 정체감을 새롭게 형성하고 생의 의미를 재조정해야하는 전환기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거틀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에 따르는 급격한 지위변화와 역할변화에 당면하면서 자신의 노화과정에도 적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2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 김명자 (E-mail : kmyu@sookmyung.ac.kr)

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1950년 전후에 출생한 오늘의 퇴직자는 자녀부양의 책임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은 개인은 물론 가족전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현행 복지법상으로 노인에 대한 규정은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55세를 전후하여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정년퇴직 이후 소득보장대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최가영·조임현·이의훈, 2001).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이후의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장노년기의 생활대책도 절실하며 퇴직이후의 삶을 재편성할 필요성도 커진다.

퇴직은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이지만 퇴직자가 한 가정의 가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적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 이후 이제까지 동한히 해왔던 가족생활이 중요한 삶의 영역이 되므로 남편의 퇴직은 퇴직자 본인은 물론, 부인·자녀 등도 함께 적응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전이가 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퇴직후의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퇴직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퇴직자와 그 가족이, 퇴직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력이나 위기관리능력을 키워나가, 새로운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퇴직자 가족이 당면한 스트레스나 문제중심의 접근보다는 이들의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으로 상정한 resilience(탄력성)은 전이가족, 위기에 처한 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최근 서구에서는 대처자원과 함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퇴직후 생애설계를 위한 최적의 성장·발달이 가능한 조건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 및 접근

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여 이겨내고 역경에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발달상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탄력성이 회복력, 복원력, 적응의 유연성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미옥, 2001).

탄력성은 역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개념으로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장을 위한 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집

중한다(Walsh, 2002). 즉, 병리적 역기능적 측면보다는 건강성, 기능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적응력과 복지감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국, 가족이 왜 실패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며 예방적 노력이 가능하다.

탄력성 접근은 개인이나 가족으로 하여금 위기로부터 견디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상호작용과정을 강화하며 성장 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역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을 병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건강성 회복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접근하며 이러한 접근은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Walsh, 1998).

초기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심한 스트레스에 당면하여 적응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강조를 두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상황적 과정 등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으며(McCubbin et al, 1999), Waller(2001)는 탄력성 연구에서의 체계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Waller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 인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보호요인을 제안하면서 탄력성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을 시사하였다.

즉 탄력성 접근은 개인의 인성특성과 함께 가족·사회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보호요인을 강화하려는 건강가족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탄력성 접근은 내적·외적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당면 발달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것은 탄력성은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개인 탄력성

탄력성에 관한 초기접근은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초기개입과 예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장애아동과 그 부모,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동일한 역경에 대하여 상이한 적응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인성특성 규명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들에 의해 규명된 탄력성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특성은 강인한 인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경심, 자존감, 내적통제, 자기효율성,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 등이 포함된다(Walsh, 1998; Werner, 1993).

Kobasa(1985)는 강인한 인성이란 당면문제를 자신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더 큰 성장 발달을 위한 도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며, 당면문제에 관하여 깊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 외에 Seligman(1990)과 Taylor(1989)는 당면한 역경에 대해 긍정적 생각이나 낙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 측면에 매달리는 사람에 비하여 역경을 보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 가능성에 대한 신념은 역경에 처한 개인이 견디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했다(Walsh, 1998에서 재인용).

2) 가족 탄력성

가족탄력성은 역경에 처한 가족이 평행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위기상황으로부터 회복하여 위기 이전의 기능적인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가족을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접근하여 역경에 처한 가족의 적응력에 관심을 두면서 가족탄력성 개념을 상정한다.

McCubbin, Thompson & Futrell(1999)은 탄력성의 초점을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가족의 경험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변화를 요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공유하는 신념, 기준, 우선순위 등의 문제에 처하며 이것이 가족평가의 기초가 되고 변화에 대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McCubbin et al.(1999)은 탄력성과 관련된 가족체계의 특성으로 가치관의 공유, 의사소통, 부모의 능력, 수용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적응과 관련한 'what'을 밝히기보다는 'how'를 규명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역경, 위기상황 자체보다는 역경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Walsh (2002)가 제시한 가족 탄력성 접근은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 성장하고 이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Walsh에 의하면 탄력성이란 역기능의 위협을 감소하여 위기로부터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의 중요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개념적 지침이며, 그는 가족탄력성 모델에 가족신념체계(family belief system), 조직패턴(organization pattern),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의 3가지 과정을 통합하였다.

가족신념체계는 역경의 의미를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함으로써, 가족의 강점을 확인하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감과 인내의 주도권 행사 등을 강화한다.

조직패턴은 역경에 직면하여 구조적 재조정과 행동변화를 통해 상호지원, 지도력의 공유, 팀워크 등을 강화해나감을 뜻한다. 의사소통 과정은 모호한 상황을 명료화하며, 개방적인 정서표현, 감정입적 반응, 협동적인 문제해결 등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여 성장해 나감을 의미한다.

Sagy와 Antonovsky(1998)는 남편의 퇴직은 퇴직한 남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전환사건이며, 따라서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수반하며, 퇴직에 대한 적응과 건강성 회복에 가족의 응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3) 사회 탄력성

Walsh(2002)는 개인탄력성을 가족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 근거한 노력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이나 가족이 보다 넓은 사회문화체계와 상호작용하며 따라서 역경에 따르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문화적 체계를 포함한 복합적 영향에 의하여 조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친족망, 지역사회, 일터, 학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cCubbin et al.(2002)은 역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적

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변화와 함께 더 넓은 지역사회 지원 등이 포함 될 것을 제안하였는데,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새로운 지원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기능적인 과업수행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요인을 제안한 Waller(2001)는 친구나 이웃의 지원, 지역사회활동, 종교활동 참여와 소속감, 지역사회의 안정성, 자녀양육에 바람직한 환경, 취업기회 등을 포함시켰다.

Coleman & Ganong(2002)은 탄력성은 사회적 지원, 친족, 지역사회, 직장 등과 관련이 있으며, 역경을 수용하고 관리하여 의미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것은 변화하는 조건과 적응을 포함하는 역동적 발달과정이라 하였다.

2. 퇴직 적응

1) 퇴직 부부의 적응

일생동안 종사해온 직업으로부터의 퇴직은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와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적인 생활사건이다.

퇴직적응은 직업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현재의 경험, 퇴직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사건과 경험, 가족과의 관계, 사회관계망 등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남녀간의 성 역할 분리, 직업과 가족 역할의 분리, 남성 생애에서의 일의 중요성 등은 퇴직후 까지도 지속되어 퇴직은 남성들로 하여금 주된 역할상실과 함께 자신의 생애가 역할 없는 역할로 전환되면서 다른 생활 영역으로부터도 유리되는 생활을 하게 한다.

나이가 직업역할 상실은 세계책임자 역할수행이라는 남성역할과 관련하여 가족 내에서 남편, 아버지의 위치를 약화시켜 퇴직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과 직업역할 분리에 근거를 둔 초기의 기능론적 관점에 의한 퇴직연구는 퇴직을 직업역할의 상실, 수입감소, 사회적 유대관계 약화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적 사건으로 접근하였다(Szinovac & Ekerdt & Vinick, 1992).

한편 남편의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사회적 지위 상실, 사회관계망의 약화 등과 같은 교환자원의 상실은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나아가 남편의 퇴직에 따른 제반 자원의 변화와 불균형으로 부부 상호간의 교환자원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의 관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함께 부부관계에 갈등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김명자, 2002).

또한 생활사건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퇴직이 이루어진 시기와 퇴직과 함께 또 다른 생활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했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둔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 퇴직을 한다면 이것은 규범적 생활사건이므로, 퇴직후의 상황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전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 예측된 사회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적응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퇴직이 생각

지도 않은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비규범적 생활사건으로, 예측된 사회화가 가능하지 못하므로 퇴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의 사건이다. 또한 퇴직에 즈음하여 노부모나 배우자 사망·질병·자녀의 이혼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퇴직에 대한 적응능력이 감소된다(Vinick & Ekerdt, 1992).

그러나 퇴직에 관한 지난 30여 년간의 미국의 연구들은 퇴직은 많은 사람들의 생애 과정에서 미미한 변동일 따름이며 퇴직 후 적응이나 결혼생활의 질에도 거의 위협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Thorson, 2000; Vinick & Ekerdt, 1992). 또한 많은 남성이 그들의 직업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퇴직을 심각한 위기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후 적응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쉬운 것도 아니라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zinovacz et al., 1992).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퇴직을 사회적 책임과 의무, 승진의 기회 등을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원하던 새로운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로 받아들이며, 퇴직스트레스는 생활사건 목록에 오른 34개 항목 중 28번째로 스트레스가 낮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Bosse, et al., 1991).

자신의 생계책임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남편일수록 퇴직후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것이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Atchely, 1992), 퇴직후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남성이라면 퇴직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문제 때문이지 퇴직 자체가 생활만족도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령, 퇴직에 대한 준비부족, 사회보장정책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퇴직은 퇴직자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퇴직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신화용, 1996; 조병은, 2001). 가부장적 규범이 비교적 강한 우리 사회에서의 퇴직자들은 전 생애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진 채 생활해온 세대이므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역할 상실에 따른 고통도 크리라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가족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산, 자녀성장, 자녀출가 등의 사건들로 인하여 역할의 불연속성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전환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재적응해야 할 기회를 일생동안 수차례 경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직업을 통하여 비교적 일관된 역할에 종사해오다가 '퇴직'이라는 사건에 의해 처음으로 역할의 불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퇴직으로 인해 초래되는 변화에 재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혼란이나 정서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위기일 수도 있다(김애순, 1995).

## 2) 탄력성과 퇴직 부부의 적응

탄력성 모델에 의한 퇴직자 가족의 적응연구는 퇴직에 따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McCubbin et al., 2002).

- ① 퇴직은 가족발달 주기 상에서 예측 가능한 사건이다.
- ② 가족은 퇴직이라는 생활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으며 퇴직후 회복이 가능하다.
- ③ 퇴직자 가족은 가족의 목표재수립,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 기존자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가족의 의미와 공유 등을 추구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며 우리 집단을 형성한다.
- ④ 퇴직자 가족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결국 탄력성은 개인, 가족의 내적·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당면한 발달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 단일차원이 아닌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퇴직자 가족의 적응과 복지감 확립을 위하여는 퇴직자 개인, 가족, 사회관계 등 폭넓은 탄력성의 보호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변인

퇴직에 대한 지각과 퇴직 이후의 적응과정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임이 밝혀지고 있다. 개인이 퇴직상황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퇴직 이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는 퇴직 시기, 퇴직의 자발성-비자발성 여부, 개인의 성격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무엇보다 개인이 퇴직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퇴직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이 퇴직이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강조되고 있다(김애순, 1995). 즉, 각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규정, 과거에 대한 평가, 장애에 대한 예측 및 검토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자기평가,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후 생활계획은 퇴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다(이승아, 1997).

허정무(1998)의 연구에 의하면 퇴직교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퇴직자 자신의 자아존중감으로 퇴직자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퇴직후 생활에 만족하였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내적 통제성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대처방법이며, 퇴직상황을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전상황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적응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애순, 1995).

### (2) 가족 변인

Sagy & Antonovsky(1998)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족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이해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특히 가족의 응집성은 퇴직에 대한 적응과 건강성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퇴직자가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화용·조병은, 2001).

가족은 가장의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상실감을 경험해야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의 퇴직에 따르는 적응과 심리적 불안정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갖는 이중적 입장이다(박충선, 1995). 가족 특히 배우자는 퇴직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원천이며 생활시간의 사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족의 수용은 퇴직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enken, 1999).

일반적으로 남편은 부인에 비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confidant)가 부족한 경향이므로, 퇴직한 남편은 부인을 통해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편의 퇴직적응은 부인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Atchely, 1992). 퇴직한 남편은 부인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면서 부부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며, 부인의 지지·안정된 부부관계가 퇴직한 남편의 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신화용·조병은, 2001; Vinick & Ekerdt, 1992). 인생 후반부에서 퇴직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사건에 대한 적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부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퇴직한 남성의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부인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퇴직남성의 사회관계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절실하다.

### (3) 사회 변인

활동이론에 의하면 퇴직후 의미 있는 역할수행과 사회활동 참여가 퇴직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전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관계망의 수립과 새로운 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해 퇴직후 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또한 퇴직후 갖게된 새로운 자유시간과 에너지를 기존의 역할, 관계에 보다 집중, 강화함으로써 퇴직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퇴직적응과 사회활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퇴직남성은 부부만 사는 경우나 대가족인 경우를 막론하고, 퇴직적응은 사회 활동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으며, 부인의 지지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은 경우 퇴직적응이 높았다(Szinovacz, 1992).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하여 남편의 퇴직이라는 역경을 극복하여 퇴직자 부부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차원에서의 탄력성을 주요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의 탄력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강인한 인성특성(Walsh, 1998), 긍정적 평가와 낙관적 견해(Seligman, 1990), 통제능력(Kobasa et al, 1985) 등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남편자신의 퇴직수용, 퇴직상황에 대한 평가, 내외 통제성을 선정하였다.

가족탄력성은 Walsh(2002), McCubbin et al.(1999)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응집성,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퇴직수용을 포함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탄력성은 Waller(2001), Coleman & Ganong(2002)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제도적 지원정책, 종교활동,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단체 활동 참여도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퇴직자 가족의 새로운 능력 개발과 상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탄력성 강화는 퇴직자 가족의 적응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

## III.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 1) 생활 적응 척도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자각이나 평가의 결과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최성재(1986)의 연구를 근거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생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 자아존중감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Rosenberg(1965)의 척도를 근거로 개발된 이영자(1996)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3) 내외통제성

자신에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두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으면 내적 통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하면 외적 통제라고 본다. Rotter(1966)의 내외통제성 척도를 토대로 국내에서 개발된 윤유경(199), 심혜선(2001) 등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 성향임을 뜻한다.

4) 퇴직 수용척도

퇴직자 자신이 퇴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로 성미애(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5) 가족원의 퇴직 수용척도

부인과 자녀가 남편, 아버지의 퇴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하여 퇴직자와 그 부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성미애(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 의사소통척도

부부 상호간에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적절히 전달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며 장병욱(1997)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7) 응집성 척도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Olson(1985)의 척도를 근거로 개발된 김명자(1991)의 척도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8) 국가나 직장의 퇴직지원 정책 만족도

퇴직자가 근무했던 직장이나 국가의 퇴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퇴직규정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이상의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부호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퇴직적응, 자아존중감, 퇴직수용정도, 의사소통도, 응집성, 퇴직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퇴직자 부부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종교생활,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단체 활동여부와 참여빈도를 측정하였다. 3명씩 각각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점부터 1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 7점을 부여하였다.

변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변인별 척도		문항수	cronbach's a	
독립변인	개인 탄력성	자아존중감	10	.82
		내외통제성	10	.61
		퇴직자 자신의 퇴직수용	6	.82
	가족 탄력성	가족의 퇴직수용	5	.82
		부부간 의사소통	6	.88
		응집성	5	.86
	사회 탄력성	국가, 직장의 퇴직지원정책	3	.75
		만족도		
	종속변인	퇴직생활적응	10	.85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45~65세에 해당하는 퇴직한 남성으로 현재 전업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비교적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퇴직남성과 그 배우자이다.

본 조사 실시예 앞서 2002년 6월에 해당부부 7쌍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0월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족학 및 노년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조사요원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뒤 퇴직남성과 그 부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퇴직자를 소개받아 접근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부부간에 서로 상의해서 응답하지 않도록 남편용, 부인용 질문지를 각각 봉투에 봉해서 배부하였으며, 수집 또한 각각 봉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500부(250쌍)였으며, 430부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348부(174쌍)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퇴직관련변인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사항 (전체 174쌍)

변인	구분	빈도 (%)	
		남편	부인
연령	45세 이상~50세 미만	5 (2.8)	24 (13.6)
	50세 이상~55세 미만	22 (12.7)	44 (25.5)
	55세 이상~60세 미만	61 (35.1)	74 (42.5)
	60세 이상~65세 미만	86 (49.4)	32 (18.4)
학력	고졸 이하	49 (28.2)	91 (52.3)
	전문대 · 대졸	107 (61.5)	81 (46.5)
	대학원졸 이상	18 (10.3)	2 (1.1)
종교	기독교	53 (30.6)	66 (38.2)
	불교	33 (19.1)	38 (22.0)
	천주교	18 (10.4)	29 (16.8)
	무교	69 (39.9)	40 (23.1)
건강상태	건강하다	127 (73.0)	98 (56.3)
	그리 건강치 않다	32 (18.4)	56 (32.2)
	지병이 있다	15 (8.6)	20 (11.5)
미혼 자녀수	없다	37 (21.3)	
	있다	137 (78.7)	
주거 형태	자가	144 (82.8)	
	세	30(17.2)	
남편의 퇴직 전 직업	기업체 간부 및 경영주	98 (56.3)	
	회사원 및 일반 공무원	48 (27.6)	
	판매서비스직 및 기타	28 (16.1)	
생활비 출처	퇴직 연금	75 (43.9)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	54 (31.6)	
	자녀 보조 및 기타	22 (12.9)	
동거 가족	시간제 직업	20 (11.7)	
	부부단독	45 (25.9)	
거주지	그 외	129 (74.1)	
	서울	102 (59.3)	
생활비	서울 근교 도시	70 (40.7)	
	200만원 미만	51 (30.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1 (36.5)	
	300만원 이상	55 (32.9)	

<표 3> 조사대상자의 퇴직 관련 변인의 일반적 사항  
(전체 174쌍)

변인	구분	남편	부인
		빈도 (%)	빈도 (%)
퇴직 시 연령	55세 미만	68 (39.1)	116 (66.7)
	55세 이상~60세 미만	57 (32.8)	39 (22.4)
	60세 이상	49 (28.2)	19 (10.9)
퇴직 시기에 대한 인식	적절한 시기에 퇴직	52 (30.1)	43 (24.9)
	너무 이른 시기에 퇴직	114 (65.9)	127 (73.4)
	생각보다 늦은 시기	7 (4.0)	3 (1.7)
퇴직 이유	적절한 시기에 퇴직 · 직업정년에 해당 개인적 이유, 건강상의 문제	70 (40.5)	
	직장에서 퇴직 강요	33 (19.1)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 제공, 기타	42 (24.3)	
		28 (16.2)	
퇴직 기간	2년 미만	47 (27.2)	
	2년 이상~4년 미만	64 (37.0)	
	4년 이상~6년 미만	33 (19.1)	
	6년 이상	29 (16.8)	

식하는 경우가 각각 28.3%로 나타났다. 부인은 상실감보다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으나 부부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 분석

변인	남편		부인		paired-t	
	$\bar{X}$	SD	$\bar{X}$	SD		
개인 탄력성	자아존중감	3.54	.58	3.42	.60	2.51*
	내외통제성	3.12	.81			
	퇴직수용	3.54	.42	3.55	.40	-.42
탄력성 인식	상실	28.3%		24.9%		$\chi^2=2.38$
	도전	43.4%		39.1%		
	위협	28.3%		36.1%		
가족 탄력성	가족원의 퇴직수용	2.90	.82	2.73	.78	2.65**
	응집성	3.56	.73	3.63	.68	-1.23
	의사소통	3.23	.70	3.12	.74	2.24*
사회 탄력성	종교활동	3.47	2.65	4.74	2.57	-6.93***
	봉사활동	2.17	2.20	2.64	2.34	-2.46*
	자발적 참여 단체활동	3.24	2.00	3.07	2.14	.93
	퇴직지원 정책만족도	2.15	.72	2.23	.70	-1.31
적응도	3.29	.59	3.23	.61	1.39	

\* p<.05, \*\*p<.01, \*\*\*p<.001

주) 종교활동,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단체 활동은 7점 척도이며 그 외의 모든 척도는 5점 척도임.

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 분석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의 일반적 경향과 부부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개인탄력성인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은 남편과 부인 모두 거의 3.5점 이상을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내적통제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부인에 비하여 의미 있게 (p<.05)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45세 이상이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나 자발적 퇴직자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은 도전의 기회로 평가하는 경우가 40%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 3), 퇴직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상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또한 남편 자신의 퇴직수용정도는 3.12로 스스로의 퇴직에 대한 수용정도는 중간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퇴직에 대한 인식은 남편과 부인 모두 40%정도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인식하였으며 남편의 경우 상실, 또는 위협으로 인

다음에 가족탄력성인 응집성은 부부모두 3.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중년기 이상의 부부들의 가족생활은 여전히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영위되면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을 보이며 부인의 응답이 의미 있게(p<.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퇴직에 대한 가족의 수용정도는 3점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수용수준 보다는 부인이 지각한 가족의 수용수준이 의미 있게(p<.01) 낮았다. 이와 같이 퇴직한 남편 자신보다는 부인의 수용정도가 낮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도 부인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히 중년기 이후의 퇴직남성들에게 있어 부인이 정서적 지원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Szinovacz, 1992), 동반자적인 부부관계 향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탄력성인 종교활동,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단체 활동, 퇴직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국가나 직장의 지원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퇴직후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 심리적 욕구충

족 방안도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의미 있게 낮은 경향을 보여 여성의 활동이나 사회 참여가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2.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분석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부간 적응정도와 paired-t 검증을 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은 중간 수준을 보이며 부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적응도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편의 경우 부인에 비해 과거의 생활적응도가 의미 있게 ( $p < .05$ ) 높았으나 현재, 미래 적응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남편과 부인의 생활적응도

변인	남편		부인		paired-t 및 유의도
	평균	S.D.	평균	S.D.	
과거	3.21	.71	3.09	.72	2.34*
현재	3.33	.61	3.28	.64	1.112
미래	3.38	.81	3.43	.76	-.96
전체	3.29	.58	3.23	.61	1.39

3.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 분석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에 대한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 변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퇴직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등간척도이며 퇴직인식은 명목변인이므로 가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여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본 결과 .60 이하로 변인간에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퇴직한 남편의 적응에 대한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 각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성변인군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개인탄력성을 분석하였는데 자아존중감( $p < .001$ ), 퇴직수용( $p < .001$ ), 퇴직상황에 대한 평가( $p < .05$ )가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45.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내외통제성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평가 및 낙관적 견해 등과 같은 강인한 인성특성이 적응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허정무, 1998; Seligman, 1990; Walsh, 1998, 2002)와 일치하나 당면 문제를 자신이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성특성이라고 주장한 연구(김애순, 1995; Kobasa, 1985)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표 6> 퇴직한 남편의 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174)

변인군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 탄력성	자아존중감	.39***	.28***	.33***
	내외통제성	-.010	-.02	-.03
	퇴직수용(본인)	.33***	.25***	.24**
	퇴직 상황 평가			
	퇴직은 상실	.19*	.13	.14
	퇴직은 도전	.19*	.12	.13
가족 탄력성	퇴직수용(가족)		.08	.04
	의사소통(부부)		.17*	.18*
	응집성		.21**	.16*
사회 탄력성	종교활동정도			-.02
	봉사활동정도			.04
	자발적참여단체활동			-.01
	퇴직지원정책 만족			.16**
	상수	1.01	.49	.31
	F	25.4***	22.1***	15.8***
	R <sup>2</sup> 증가량		.088***	.023
	R <sup>2</sup>	.455	.543	.566

다음에 가족탄력성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54.3%로 증가하였으며, 이때 의사소통( $p < .05$ )과 응집성( $p < .01$ )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드러났고, 가족의 퇴직수용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로 사회탄력성 변인을 추가해보니 퇴직지원정책 만족도( $p < .01$ )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남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그 크기순으로 보면 개인탄력성인 자아존중감( $\beta = .33$ ), 퇴직수용( $\beta = .24$ ), 가족탄력성인 의사소통( $\beta = .18$ ), 응집성( $\beta = .16$ ), 사회탄력성인 퇴직지원정책만족( $\beta = .16$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변인이 퇴직한 남편의 적응을 56.6%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남편을 둔 부인의 적응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퇴직한 남편을 둔 부인의 적응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N=174)

변인군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 탄력성	자아존중감	.61***	.51***	.47***	
	내외통제성	-.06	-.10	-.11	
	퇴직 상황 평가	퇴직은 상실	.04	.05	.03
		퇴직은 도전	.10	.03	-.05
가족 탄력성	퇴직수용(가족)		.13	.14*	
	의사소통(부부)		.19**	.20**	
	응집성		.18**	.17*	
사회 탄력성	종교활동정도			.25***	
	봉사활동정도			-.02	
	자발적참여단체활동			-.10	
	퇴직지원정책 만족			.10	
상수		1.31	.53	.36	
F		24.1***	20.7*+**	16.5***	
R <sup>2</sup> 증가량			.106***	.062**	
R <sup>2</sup>		.402	.508	.571	

먼저 개인탄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p < .001)이 뚜렷하게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0.2%를 보였고, 내외통제성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에 가족탄력성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50.8%로 증가하였으며 이때 의사소통(p < .01)과 응집력(p < .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단계로 사회탄력성 변인을 추가해 보니 설명력은 57.1%로 상승하였으며 종교활동 정도만이 뚜렷하게 의미있는 (p < .001) 변인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남편을 둔 부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그 크기순으로 보면 개인탄력성인 자아존중감(β=.47), 사회탄력성인 종교활동정도(β=.25), 가족탄력성인 의사소통(β=.20), 응집성(β=.17), 퇴직수용(β=.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변인이 부인의 적응을 57.1% 설명해주고 있다.

이상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을 종합해 보건대, 개인 탄력성 변인으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의 퇴직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의 퇴직이 부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퇴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퇴직자 자신 그리고 그 부인의 자아존중감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퇴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퇴직적응이 용이함을 말해주며 개인의 인성이 다른 어떤 변인보다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Thorson, 2000)와도 일치한다.

다음에 가족탄력성 변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경우 모두 의사소통, 응집성이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덧붙여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퇴직에 대한 가족의 수용이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가족원간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 적극적 상호작용 등이 퇴직자 가족의 적응과 건강성 회복을 돕는 유용한 변인임을 말해준다.

즉, 여전히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는 오늘의 퇴직자들의 가족생활에서 응집성,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는 퇴직자 가족의 취약성을 극소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탄력성 변인으로는 남편의 경우에는 퇴직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의 경우에는 종교활동 정도가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퇴직후에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지니고 많은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의 적응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특히 남편의 경우에 퇴직지원정책이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퇴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의 퇴직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부인의 경우 종교활동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종교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우며, 종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의미와 내적 의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종교생활은 중년기 이후 여성의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명자, 1998).

또한 퇴직적응과 사회활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퇴직남성의 경우 부부만 사는 경우나 대가족인 경우를 막론하고, 퇴직적응은 사회 활동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으며, 부인의 지지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Szinovacz, 1992)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한 남성의 경우, 정서적·표현적 욕구를 부인을 통해 충족하려는 경향을 말해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종교활동이 높은 경우 퇴직적응이 높았는데 이러한 부부간의 사회 탄력성의 상이한 영향력은 퇴직기 부부문제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퇴직 준비교육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45~65세의 퇴직한 남성과 부인으로 의도적 표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중류층 이상에 속하는 경향을 보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개인, 가족, 사회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개인탄력성으로 상정한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남편 자신의 퇴직수용정도는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응집성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을 보이며, 남편의 퇴직에 대한 가족의 수용정도는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회탄력성의 경우 4가지 영역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의미 있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퇴직한 남편과 부인의 적응은 중간 수준을 보였으며 부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적응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응집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퇴직에 대하여 남편자신이나 부인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퇴직적응도가 높았다. 이외에 남편의 경우에는 퇴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는 경우에, 부인의 경우에는 종교활동을 빈번히 하는 경우에 퇴직적응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퇴직이 퇴직자 개인의 생활전이 이지만 가족체계 특성상 은 가족원이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의 탄력성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퇴직자 가족이 어떻게 실패하는 가보다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강조점을 두으로써 퇴직자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며 예방적 노력의 필요성을 밝혔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퇴직자 개인은 물론 퇴직자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입안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탄력성이 퇴직에 당면한 가족의 적응을 돕는 유용한 기제임을 규명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퇴직후의 상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단 퇴직하였으나 시간제로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경우, 퇴직후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의 퇴직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퇴직적응에 유용한 기제로 드러난 개인, 가족, 사회 탄력성에 관하여 각 영역 별로 보다 정교하게 심층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년퇴직, 조기퇴직, 퇴직의 자발성 여부 등 다양한 퇴

직 상황에 따른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 기간이나 퇴직 후의 경제 상태,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 접수 일 : 2003년 08월 27일

□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11일

##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명자(2002). **교환 및 자원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편). **가족학 이론**. 서울: 교문사.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1995). 은퇴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5(1), 141-157.
- 박충선(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 방안. **한국노년학**, 15(1), 125-137.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관찰-부인과 남편의 지각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4, 117-131.
-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1996). **스트레스-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최가영·조임현·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편). **논총 : 사회과학**, 49, 223-258.
- 허정무(1998).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tchley, R. C.(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ximiliane, S.,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Bosse,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 (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Coleman, M. & Ganong, L.(2002). Resilience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01-103.
- Gall, T. L., D. R. Evans & J. Howard.(1997). *The Retirement*

-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retirees across Time. *Journal of Gerontology* 52(3): 110-117.
- Ganong L. H. & Coleman M.(2002). Family resilience in multiple contex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346-348.
- Henken, S. K.(1999). Retirement intentions and spousal support: A Multi-Actor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2), 63-73.
- McCubbin, H. I., Thompson, E. A., Thompson, A. I. & Futrell, J. A.(1999). *The dynamics of resilient families*. Thousand Oaks; Sage.
- McCubbin, M. et al.(2002). Family resiliency in childhood cancer. *Family Relations*, 51(2), 103-111.
- Patterson, J. M.(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349-360.
- Phillipson, C.(1993). The Sociology of retirement. J. Bond, P. Coleman, & S. Peace(eds.). *Ageing in society-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Sagy, S. & Antonovsky, A.(1998). The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the retirement transition. In H. I. McCubbin, E. A. Thompson, A. I. Thompson & J. E. Fromer(Eds.). *Stress, coping and health in families*, Thousand Oaks; Sage.
- Szinovacz, M.(1992). Social activities and retirement adaptation. In Maximiliane, S.,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Szinovacz, M., Ekerdt, D. & Vinick, B.(1992). Families and retirement;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aximiliane, S.,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Szinovacz, M. E. & De Viney, S.(1999). The retiree identity; Gender & race dif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4), 207-218.
- Thorson, J. A.(2000). *Aging in a changing society*, Philadelphia; Brunner & Mazel.
- Vinick, B. A. & Ekerdt, D. J.(1992). Couples view retirement activities; expectation versus experience. In Maximiliane, S.,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Waller, M. A.(2001). Resilience in ecosystemic context: evolution of the concep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3), 290-297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_\_\_\_\_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 Werner, E. E.(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5, 503-515.